한국어 ·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 비교 및 대조: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와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2019)』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과 제4학년

2017115035 조서진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
 - 2.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
 - 3. 한국어 품사 용어에 대한 러시아어 대역어
- III. 결론

I. 서론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 관심도 및 교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러시아어 학습이나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학습 등 언어 학습에 대한 수요 역시도 증대되고 있다. 외국어 습득 측면에 있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¹⁾과 같은 ‘전통적 문법 교육론’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전통 이론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의사소통 중심 교육론’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다 고급의 학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법 교육이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문법 교육이 보강된 수정된 의사소통 중심 교육론이 자리잡게 되었다(민현식, 2010).

위의 지적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 즉 언어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외국어의 학습을 위해서라면, 외국어의 언어 체계를 모국어의 언어 체계를 통해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언어의 체계를 다른 언어로 체계화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언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음성과 음운에 대한 연구, 형태 및 문장 구성의 원리에 대한 연구, 의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언어학의 하위 분과로서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도 형태론과 통사론을 묶어 흔히 ‘문법론’이라 부른다(윤평현, 2019: 17). 형태론의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품사(part of speech; части речи)’는 한 언어의 모든 어휘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언어는 곧 의사소통을 위함이고,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언어 층위는 기본이 되는 순서

1) 서구권에서 라틴어 및 회랍어 교수에 사용되던 고전적 교수법으로, 19세기에 이르러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알려졌다. 어휘를 암기하고, 목표언어(target language)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여 이를 통해 목표언어의 문법 규칙을 숙지함으로써 다른 문장에 적용하더라도 해당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수법이다(한재영 외, 2005: 16).

대로 ‘단어(어휘) - 문장 - 발화’가 된다. 즉, 어휘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형식이 된다. 이러한 어휘의 체계로서 품사는 한 언어의 문법적 기술의 기초를 이루기도 하기 때문에(최지영, 2016: 72),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체계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품사’는 한 언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어휘를 형태 · 기능 · 의미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언어 학습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단어의 ‘어휘-문법적 부류(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разря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9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 로, 러시아어는 10품사 - 명사, 대명사, 형용사, 수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 로 이해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품사 체계에서, 명칭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한 언어 체계에는 존재하는 개념이 다른 언어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관형사’와 같은 개념은 한국어에만 존재하고 러시아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 체계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비교 및 대조하고자 한다. 모든 어휘를 분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형태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품사’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언어 체계에 맞게 상대 언어의 품사 분류 체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각 언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는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을 따른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어 품사 분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현대 러시아어의 체계에 가장 가까운 분류 체계인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연구를 전개한다.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는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2019)』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어 품사 분류에도 역시 다양한 체계가 주장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꾸준히 학교 문법 및 학문 문법의 해설서로서 기능하는 본서의 분류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러시아어 대역어를 살펴볼 때에는 러시아에서 편찬된 한국어 학습용 교재를 참고하며, 다음의 두 권의 교재를 참고한다: 1) 홀로도비치(А. А. Холод ович), 한국어 문법 개론, 『Очерки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Ленанд, Москва. 2014. 제 4판.; 2) 마주르(Ю. Н. Мазур), 현대 한국어 문법 · 형태론 · 조어론,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 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осква. Муравей -Г ай д. 2001.. 두 권 모두 러시아인 한국어학자가 기술한 한국어 문법서로,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권을 선정하였다.

II. 본론

1.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

한국어 문법에서,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으로, 한국어에는 총 9개의 품사가 존재한다.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형식(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의 세 가지이다. 형식(꼴)은 단어의 형태적 특징으로, 문장에서 단어의 모습이 변화하는가를 가리킨다. 기능(구실)은 한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의미(뜻)는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가 아닌 추상적 의미를 가리킨다. ‘형식’을 기준으로 가변어와 불변어를, ‘기능’을 중심으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과 용언을,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및 형용사를 구분한다. 각 품사의 정의는 【표 1】과 같다(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 27-33; 43-65; 99-107; 169-181).

품사	정의
명사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
대명사	사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만 가리키기만 하여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
관형사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
부사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
감탄사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
조사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
동사	사물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

【표 1】 품사의 정의: 한국어

한국어의 9품사를 품사 분류 기준인 형식, 기능, 의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형식>	<기능>	<의미>
단어	불변어 (uninflected word)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가변어 (inflected word)	수식언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용언	동사	
형용사			

【표 2】 품사 분류 체계: 한국어

2.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

러시아어 문법에서, ‘품사’란 주어진 부류의 모든 단어에서 어휘적 · 문법적 의미로부터 연상되는 일반화된 의미를 가지며, 특정한 문법적 범주의 복합이자, 동일한 파라디그마 구성을 갖고, 기본적인 통사 기능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자질의 총체로 특징지어지는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문법적 부류’이다. 러시아어에는 총 10개의 품사가 존재한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знаменательные слова)’에 명사(им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대명사(местоимение-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형용사(имя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수사(имя числительное), 부사(наречие), 동사(глагол)가 속하며,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에 전치사(предлог), 접속사(союз), 소사(частица)가 속하고, 마지막으로 독립된 그룹으로서 감탄사(междометие)가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다시 ‘주요 품사(основные части речи)’와 ‘비주요 품사(неосновные части речи)’로 구분되며, 명사 · 형용사 · 동사 · 부사는 주요 품사에, 대명사 · 수사는 비주요 품사에 속한다. 각 품사의 정의는 【표 3】 과 같다.

품사	정의
명사	часть речи, обозначающая предмет (субстанцию) и выражающая это значение в словоизменительных категориях числа и падежа и в несловоизмените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рода 대상[실체]를 나타내고, 이 의미를 어형변화 범주인 ‘수’, ‘격’과 비어형변화범주(분류범주)인 ‘성’을 통해 나타내는 품사
대명사	часть речи, указывающая на предмет и выражающая значение указания в 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ях падеж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числа и рода (не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대상을 가리키고, 대용의 의미를 ‘격(일치)’, ‘수와 성(불일치)’의 문법적(형태론적) 범주로 나타내는 품사
형용사	часть речи, обозначающая не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признак предмета и выражающая это значение в словоизменительных 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ях рода, числа и падежа 대상의 비과정적 특성을 표현하며, 이 의미를 문법적(형태론적) 어형변화 범주인 ‘성’, ‘수’, ‘격’을 통해 나타내는 품사
수사	часть речи, обозначающая количество и выражающая это значение в 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ях падеж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рода (не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수량을 나타내며, 이 의미를 문법적(형태론적) 범주인 ‘격(일치)’과 ‘성(불일치)’를 통해 나타내는 품사
동사	часть речи, обозначающая процесс и выражающая это значение в категориях вида, залога, наклонения, времени и лица 과정을 나타내며, 이 의미를 상, 태, 법, 시제 및 인칭의 범주로 나타내는 품사
부사	часть речи, обозначающая не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признак действия, предмета или другого не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признака 행위, 대상 또는 다른 비과정적 자질의 비과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품사

전치사	<p>служебная часть речи, оформляющая подчинение одног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го слова другому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или в предложении и тем самым выражающая отнош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тех предметов и действий, состояний, признаков</p> <p>어결합이나 문장에서 하나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른 단어에 종속시키는 형태를 갖추고, 대상·행위·상태·자질을 상호적으로 표현하는 보조적 품사</p>
접속사	<p>служебная часть речи,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й оформляется связь между частями слож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между отдель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в тексте, а также связь между словоформами в составе простого предложения</p> <p>복잡한 문장의 부분 사이를 연결하고, 텍스트에서 개별 문장 사이를 연결하고, 간단한 문장 구성에 있어서 어형태 사이의 연결을 돕는 보조적 품사</p>
소사	<p>개별 단어 및 전체 문장에 의미적 뉘앙스를 부여하는 보조적 품사</p>
감탄사	<p>класс неизменяемых слов, служащих для нерасчлененного выражения чувств, ощущений, душевных состояний и других эмоциональных и эмоционально-волевых реакций на окружающ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p> <p>주변 현실에 대한 감정, 감각, 정신 상태 및 기타 정서적 또는 정서-의지적 반응의 분리되지 않은 표현을 제공하는 단어의 불변 부류</p>

【표 3】 품사의 정의: 러시아어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단어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слова)	주요 품사 (основные части речи)	명사 (им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형용사 (имя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비주요 품사 (неосновные части речи)	동사(глагол)
			부사(наречие)
	보조어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전치사(предлог)	
		접속사(союз)	
		소사(частица)	
감탄사(междометие)			

【표 4】 품사 분류 체계: 러시아어

3. 한국어 품사 용어에 대한 러시아어 대역어

홀로도비치(Холодович, 2014)는 한국어 어휘를 사물 또는 사물의 질·행동·상태·과정 등을 나타내는 부류인 ‘품사(части речи)’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또는 보충적 의

미를 표현하는 부류인 ‘소사류(частицы речи)’로 분류하였다. 품사는 명사 · 대명사 · 수사 · 형용사 · 동사 · 부사로, 소사류는 후치사(послелог) · 접속사 · 소사로 각각 세분화하였으며, 감탄사는 품사로 취급하지 않고 ‘특수한 단어’로 분류했다. 즉, 현대 러시아어 품사 분류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품사’로 분류하였으며, ‘보조어’에서 전치사를 삭제하고 ‘후치사’를 새롭게 추가했고, ‘감탄사’를 분류 체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품사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용언의 관형사형은 ‘형동사(причастие)’, 용언의 부사형은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홍택규, 2000: 384). 홀로도비치의 품사 분류 체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단어	품사 (части речи)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부사
	소사류 (частицы речи)	후치사
		접속사
		소사
	감탄사	

【표 5】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

마주르(Мазур, 2001) 역시 홀로도비치와 유사하게 한국어 어휘를 ‘품사(части речи)’와 ‘의존어류(служебные слова)’로 구분하고 있다. 품사에는 명사 · 대명사 · 수사 · 형용사 · 동사 · 관형사(атрибутивное) · 부사 · 묘사어(изобразительные слова) · 감탄사의 9개가 포함되며, 의존어류에는 후치사 · 접속사 · 의존명사(служебное имя) · 분류사(счетные слова) · 보조용언에 해당하는 보조동사(служебный глагол) 및 보조형용사(служеб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연결사(связка) 그리고 소사가 포함된다. ‘품사’는 러시아어 품사 분류 체계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에, ‘의존어류’는 ‘보조어’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마주르의 품사 분류 체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단어	품사 (части речи)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묘사어
		감탄사	
	의존어류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후치사	접속사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연결사	소사

【표 6】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

홀로도비치와 마주르 모두 한국어에서는 단어로 인정되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어에서 단어는 최소한의 자립 단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는 자립해서 쓸 수 없고 의존성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는 조사 특유의 생산성 때문이다. 한국어의 조사를 ‘격조사(case particle)’, ‘보조사(auxiliary particle)’, ‘접속조사(conjunctie particle)’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격조사의 경우 명사의 어형 변화에서 홀로도비치는 ‘격조사’로, 마주르는 ‘형성소(форматив)’로 대역한다. 보조사와 접속조사는 두 학자에게서 모두 ‘양상조사’ 내지는 ‘부정부사’로 인식되어 광의의 ‘조사’로 대역한다.

홀로도비치와 비교할 때, 마주르는 한국어 어휘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관형사’와 ‘묘사어’가 품사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고, 홀로도비치가 어휘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감탄사를 마주르는 ‘품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특징적이다. 마주르가 관형사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 반면 홀로도비치는 관형사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관형사를 세분화하여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로 살펴볼 때, 홀로도비치는 각각을 형용사, 대명사, 수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어 품사 용어와 홀로도비치, 마주르의 대역어를 도식화하면 【표 7】 과 같다.

한국어 품사		홀로도비치	마주르
명사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대명사		местоимение	местоимение
수사		числительное	числительное
동사		глагол	глагол
형용사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관형사	성상 관형사	형용사(прилагательное)에 포함 (품사로 취급하지 않음)	атрибутивное
	지시 관형사	대명사(местоимение)에 포함 (품사로 취급하지 않음)	
	수 관형사	수사(числительное)에 포함 (품사로 취급하지 않음)	
부사		наречие	наречие
감탄사		междометие (품사로 취급하지 않음)	междометие
(의성어/의태어)		-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слово
조사	보조사	частицы речи : послелог, союз, частица(보조사)	-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 послелог, союз, служебное имя, счетное слово, служебное слово
	접속조사		

		(нумеративное), слудебный глагол, служеб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связка, частица - 의존명사 · 부정부사 · 보조사를 소사(частица)로 대역
격조사	падежные частицы : 명사 어형변화 시 ‘격조사’	падежные частицы : 명사 어형변화 시 ‘형성소’

【표 7】 대역어: 홀로도비치, 마주르

홀로도비치와 마주르 모두 한국어 품사를 러시아어의 관점에서 체계화하고자 시도했다. 언어유형론(language typology)²⁾의 관점에서 러시아어는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에 해당한다.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굴절어 체계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단어의 곡용으로 받아들이는 두 학자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 형태에 따른 한국어 품사 분류에서 ‘가변어’에 해당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용언(동사, 형용사)의 경우만 따로 살펴보면 한국어 역시도 굴절어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문장에서의 기능이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어는 ‘교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친족어(language family; родственный язык)를 분석할 때, 동일한 어족끼리 동일한 유형적 특성을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러시아어 체계를 통해 한국어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가 위의 품사 분류 체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며 현재는 한국어를 독립된 어족으로 보기도 한다(강범모, 2020: 287-288).)

두 학자의 품사 분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품사 체계 내에서 ‘감탄사’와 ‘관형사’의 위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홀로도비치는 감탄사와 관형사를 모두 품사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마주르는 감탄사와 관형사를 모두 품사 분류 중에서도 ‘품사(части речи)’에 분류하였다.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두 학자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품사를 세분화한 마주르는 품사 분류 기준 중 ‘의미’를 중요시하였음을, 홀로도비치의 경우에는 ‘형식’과 ‘기능’을 중시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구조적 유사성에 따라 언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단어의 형성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고립어(isolating language) -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순전히 문장 속에서 그것의 위치에 따라 문법 관계가 결정되는 언어; ② 첨가어(교착어; agglutinative language) - 하나의 (문법적) 의미를 가진 각각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언어; ③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 -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가 단어의 모양 변화(굴절)로 표시되는 언어(강범모, 2020: 288).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 체계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비교·대조하며, 러시아어로 된 한국어 문법서에서 한국어 품사와 관련된 용어가 어떻게 대역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소사’와 ‘관형사’의 차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같은 품사임에도 다른 자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어 버리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품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품사로 인정되지 않던 몇 개의 부류를 묶어 하나의 새로운 품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버리기도 한다.

언어 학습을 위해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용어를 대역하고 그 체계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의 체계를 모국어의 체계로 완벽하게 전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어휘를 분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론, 특히나 품사 분류는 언어 체계화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를 거듭하여 보다 완전한 체계를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언어학의 독립 분과로서의 ‘형태론’과 ‘대조언어학’을 융합하여, 분석 대상 언어를 개별적·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융합적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언어 간에 내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면 외국어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한재영, 박지영, 현윤호, 권순희, 박기영, & 이선웅. (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민현식. (2010). 統合的 文法 教育의 意義와 方向. 문법교육, 12, 1-37.
-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 최형용. (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윤평현. 새로 쓴 국어 의미론. 역락, 2019.
- 최지영. 러시아어권 한국어 문법서의 품사 체계와 대역어 양상. 노어노문학, 2016, 28.1: 67-85.
- 강범모.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20.
- 홍택규. АА Холодович,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한국어문법개요). 형태론, 2000, 2: 383-390.
- 홀로도비치(А. А. Холодович), 한국어 문법 개론, 『Очерки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енанд, Москва. 2014. 제 4판.
- 마주르(Ю. Н. Мазур), 현대 한국어 문법 · 형태론 · 조어론,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осква. Муравей -Гай д. 2001.